

정산부터 계약서 검토까지...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상담 확대

박자연 기자 입력 2026-05-25 11:15

변호사·노무사 중심 자문단에 세무사 10명 추가 위촉
상담 신청 방식 온라인 전환...전화·대면 등 무료 지원



서울시는 5월부터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5월부터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실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으로 프리랜서는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저작권 이슈, 분쟁 해결은 물론 세무 자문까지 활동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변호사·노무사 중심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세무 상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등 실무형 세무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트렌드 뉴스

- 1 "복권 당첨되는 꿈이 현실로"...1227회차 로또당첨...
- 2 시흥시, 시민이 뽑은 '10대 짬뽕' 선정...미식관광 브...
- 3 레미콘 총파업 초읽기...주택·반도체 공사 '연쇄 셧...
- 4 "설마 나?"...제1227회 로또 1등 각 26억7000만...
- 5 코스닥 황제주의 추락...삼천당계약 18%대 급락

관련기사

"서울에서 하룻밤, 여행의 품격이 달라진다"...서울시, '명품 서울스테이' 찾는다
"30년 서울의 맛을 찾습니다"...서울시, '오래가게' 시민 추천 접수

시는 이번 개편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 중심으로 상담 체계를 전환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분쟁 상담을 올해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로 확대 운영해 왔다. 다만 기존 '분쟁 상담'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상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상담 분야도 확대된다. 세무 상담 신설 외에도 계약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부터 저작권·초상권·2차적 저작물 처리, 납품·검수·대금 지급 조건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기존 변호사, 노무사 중심의 35명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총 45명 규모의 전문가 풀을 운영한다. 상담 신청 시 조사관이 상담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고, 필요시 합의문 작성,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법률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상담 신청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기존 수기 방식 대신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해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회원 가입 후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전화·온라인·대면 방식 중 선택 가

실시간 뉴스

06.09 09:08

39초전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다"... 2030세대
공원 개표소 앞 가보니

3분전

트럼프 "조심 안 하면 혼자 남을 것"
에 확진 경고

3분전

업스테이지, AI 에이전트 플랫폼 '스피어'
수...B2B 사업 기반 확대

3분전

토스 페이스페이 가입자 600만명 돌파
자 60%가 지속 이용"

4분전

국내 첫 '섬비엔날레' D-300... 보령
예술축제 향한 카운트다운 시작

아주PICK

"설마 나?"...제1227회 로또 1등 각 26억7000만원씩, '이...

"엄만 김치녀""여잔 남자 잘 만
나야"...'하시4' 김지민 계엄 ...

이문정, 세 아이 엄마 됐다..."임
신 후반기 조심스럽게 보내"



능하며, 필요시 대면 중재 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과 세무 단계부터 문제 발생 전 함께하는 동행 서비스로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프리랜서운

#프리랜서

0

0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기자의 눈] 음모론 키운 선관위, '분골쇄신'이 답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원페이백 개시...10일부터 신청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잠실에 선결제 해주세요"... 갑자기 아이유에 불뚝 튜 이유?

재계 총수보다 먼저 '페이커'...젠슨 황 향한 첫 일정 눈길

글로벌 뉴스

중국

일

북중 전략적 공조 강조한 째 "외교·군사 교류 강화"

째 7년만의 방북...북중 '혈맹' 부각한 中관영매체

"거목 같은 북중 우의"...中, 시진핑 방북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

중국뉴스 더보기

셋이 후원하는

즐거움

컴패션 같이양육 >

댓글 0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욕설, 타인비방, 광고성 등의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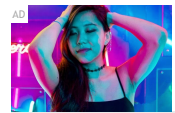
0 / 300

등록



00:00





19년 중매
만든 결혼



흑자, 이 방
리채 녹였C



'발톱무좀 (도
효과없던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
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
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
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
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
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

AD

i AD

i AD

i

고객의 소리로 만든 요즘
보청기 무료체험

발톱무좀 효과직빵 비법,
꼭 보세요 (찐후기)

19년 중매 마담뚜가 만든
결혼 등급 테스트

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

회장·발행인 : 곽영길

사장·편집인 : 임규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전화 : 02-767-1500

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

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AJUNEWS All rights reserved.